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78회 제2차 정례회

카지노 신설·이전·확장시 영향평가 받는다

문화관광체육위, '카지노업 조례 개정안' 수정 가결 심의위원회 설치... 심의결과 도의회 보고 조항 추가

제주지역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시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지난 22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

례회 1차 회의를 열고 해당 조례안을 수정 가결했다.

제주도가 제출한 개정 조례안은 제주 카지노산업의 투명·건강한 발전을 위해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실시 근거 및 평가 대상과 심의위원회 설치 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영향평가 대상은 카지노업 신규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와 영업소 소재

지의 변경, 영업장 면적 변경 관련 증가 규모와 기존 규모를 합쳐 기존 면적의 2배를 초과하는 경우 등이다.

영향평가 대상인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서를 작성, 허가 또는 변경허가 신청 60일 전까지 제주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영향평가서가 제출되면 도지사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가 결과를 통보하게 된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심의위원회는 도지사 소속으로 두게 되며, 심의

위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공정하게 구성·운영하되 지역주민 대표와 시민단체 등 민간전문가를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다.

이날 문광위는 조례안 심사를 통해 영향평가 심의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또 영향평가는 영향평가대상사업의 시행에 따른 경제·사회·환경 및 지역사회 기여 등의 분야에 대해 실시하도록 했으며, 심의위원회는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명시했다.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김향옥 홍원표 강경순 오은옥

도지정 무형문화재 4종목 보유자 인정

제주농요 김향옥씨
성읍초가장 홍원표씨
오메기술 강경순씨
영감놀이 오춘옥씨

제주농요는 2007년, 영감놀이는 2011년 보유자가 사망했고, 오메기 술은 2017년 김을정 보유자가 명예보유자로 전환돼 보유자 자리가 공석이었다. 성읍리초가장은 석공과 토공, 초가지붕이 기, 목공 등 4개 분야로 나눠졌는데, 목공분야 보유자가 사망하면서 자리가 비었다.

빈 자리였던 제주도 지정 무형문화재의 명맥이 이어진다.

제주도는 22일 도 지정 무형문화재 4개 종목에 대해 보유자 인정 사실을 고시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에 고시로 새롭게 인정된 보유자는 제16호 제주농요에 김향옥(67·여)씨, 제19호 성읍리초가장(목공) 홍원표(61)씨, 제3호 성읍민속마을 오메기 술 강경순(63·여)씨, 제2호 영감놀이 오춘옥(66·여)씨다.

제주도 관계자는 "이번 보유자 인정이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통을 이어려는 이들에게 활력을 불어 넣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현재 도내 무형문화재 27개 종목(국가 5개·제주도 22개) 중 4개 종목(벌치후리는 노래·고소리 술·덕수리불미공예·제주큰굿)은 보유자가 공석인 상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세금 낭비되는 일 없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현장 확인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성균)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사에 앞서 지난 22일 사전 현장확인이 필요한 대상지역 5곳을 방문했다.

이날 행사에 위원들과 관계공무원 등이 찾은 곳은 제주시민회관 복합문화시설, 소통협력공간 부지 및 건물, 산지전 동측 옛 새마을금고, 우도 농어촌폐기물 소각시설, 우도 폐기물 처리시설 토지 매입 장소 등이다.

강성균 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으로 매입하는 것인 만큼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확인해 신중하게 심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은지기자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위원들이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사를 앞두고 지난 22일 심사 대상지역 중 하나인 우도 폐기물처리시설 토지매입 장소 등을 방문해 현장 확인하고 있다.

버스준공영제 감시 강화... 한국공항 지하수 연장

환도위, 조례·동의안 가결 지하수 개발·이용 2년 연장 이익 환원 등 부대의견 달려

방만 운영시 재정지원 제한 등 버스준공영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한국공항(주)의 제주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 연장 동의안이 제주도의회 1차 관문인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지

난 22일 속개한 제378회 제2차 정례회 1차 회의에서 조례안을 수정가결, 동의안은 부대의견을 달고 원안가결했다.

'버스준공영제 조례안'은 지난 9월 버스 준공영제 제도개선 협약을 토대로 준공영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기존 협약서의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안은 준공영제운영위원회를 설치해 준공영제 운영과 수입금공동 관리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고, 매년 회계 전문가를 통해 표준운송원가를 검증·산정하도록 했다.

또 운수업체가 자체 선정하던 감사인을 도지사가 매년 공모를 통해 지정하는 감사인에게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도 재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거나 관련 법령 개정으로 준공영제 운영을 지속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준공영제를 중지하는 내용과 재정지원금 환수 또는 감액처분을 3년 이내 3회 이상 받은 운송사업자를 준공영제에서 영구 또는 일정기간 제외하는 규정도 포함돼 있다.

한국공항(주)의 지하수개발·이용 기간은 상임위 문턱을 넘으면서 본

회의를 통과하면 2년 연장된다.

이날 환도위는 지하수 오염 예방 활동 강화 방안 마련과 유효기간 연장에 대한 법적 근거에 대해 법제처 등의 유권해석을 받아 근거를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특히 제주 생명수이자 제주의 공공자원인 지하수를 이해 기업이익을 창출하는 만큼 이익금 중 일부를 지역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제시했다.

이 동의안은 24일까지인 현재 한국공항(주)의 지하수 개발·이용 기간을 2021년 11월24일까지 2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용량은 매년 3만6000㎡로 기존 수준을 유지했다.

오은지기자

제주시, 겨울철 대비 도로제설 대책 마련

제주시는 겨울철 폭설에 따른 도로이용 불편 최소화 및 원활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오는 12월 1일부터 내년 3월 15일까지 동절기 도로제설대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이를 위해 제설차(염화칼슘 105톤, 소금 285톤) 확보, 첨단로 자동염수 살포장치 점검, 읍면동 염수탱크 염수 보충(5개소), 제설장비 점검, 제설 취약구간 모래주머니 비치(7400개)를 완료했다.

읍면동에 제설차량 2대, 염수탱크 5대, 차량 장착용 소형 삽날 3개, 모래(제설제) 살포기 19대, 친환경 제설할 208개, 제설제 49톤(15kg·3274포)을 배치해 주요 간선도로 외 구간에도 제설작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폭설시 비상근무체계를 가동해 오전 4시부터 신속하게 제설작업을 실시해 출근길 시민불편이 없도록 만전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대모기자 bigroad@ihalla.com

한라산국립공원 50년 공모전 '왕관릉과 오름군' 최우수

제주도 세계유산본부는 2020년 한라산국립공원 지정 50주년을 기념해 실시한 사진 공모전에서 '왕관릉과 오름군'을 최우수 작품으로 선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지난 8월 5일부터 9월 10일까지 이뤄졌으며, 한라산 자연생

태 및 경관사진 407점, 추억의 사진 69점 등 총 476점이 접수됐다. 슬로건 분야에서는 354점이 공모했다.

심사결과 자연생태 및 경관사진에서는 왕관릉과 오름군을 비롯해 47점이 당선됐으며, 추억의 사진은 '탑재의 추억' 등 20점이 선정됐다. 슬로건 분야는 '한라산! 50년을 담다, 미래천년을 열다'가 당선됐다. 당선된 사진은 12월 31일까지 한라산국립공원 산악박물관에서 전시된다.

송은범기자 seb1119@ihalla.com

2019년 하반기 한국은행 제주본부·제주연구원 공동 지역경제 세미나

불확실성 시대의 제주경제

■ 일 시
2019년 12월 3일(화) 16:00~18:00

■ 장 소
라마다프라자제주호텔 8층 탐라홀
주소: 제주시 탐동로 66

■ 발표자, 사회자 및 토론자

■ 발표자: 제주경제의 성장요인과 시사점
(한국은행 제주본부 경제조사팀장 우준명)
불확실성 시대 제주경제 전망과 시사점
(제주연구원 상생경제연구부장 곽봉원)

■ 사회자: 강기춘 교 수 (제주대학교 경제학과)

■ 토론자: 고선영 센터장 (제주관광공사 조사연구센터)
부성혁 변호사 (법무법인 승민)
송성훈 부 장 (매일경제)
송재은 교 수 (단국대학교 경제학과)

■ 주 최
한국은행 제주본부, 제주연구원

■ 후 원
제주금융협의회, 제주금융포럼

※ 문의처: 한국은행 제주본부 기획금융팀 (064)720-2503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한국은행 제주본부

2019년도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승년의 밤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에서는 다사다난했던 기해년 한 해를 마무리하고 회원 간의 화합의 장을 마련코자 **승년의 밤**을 개최하오니 많은 참석과 성원 바랍니다.

일 시
2019년 12월 6일(금) 19:00

장 소
메종글래드 제주 아메티스트홀

참 석
기술사 회원 (부부동반)

제주특별자치도 기술사회 회장 유병호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 소아암 환아를 위한 행복 나눔 기부 음악회

세번째이야기 희망오름

희망, 불어오른다.

행복

2019.11.27(수) 19:00

제주특별자치도문예회관 대극장

문의 | 010 5220 2895

티켓 판매 수익금은
(사)제주특별자치도 백혈병 소아암 환아들에게 전액 기부됩니다.
대한불교법화종 흥법정사 주지 도일 관효

주최 | 흥법정사 선재합창단 주관 | 흥법정사 신도회
후원 | (사)제주특별자치도백혈병소아암협회 · 제주법화불교대학 · 제주법화불교대학총동문회 · 제주불교연합회 · 제주불교신문 · BTN불교TV · BBS불교방송